

<http://dx.doi.org/10.17703/JCCT.2024.10.3.181>

JCCT 2024-5-22

## 마르셀 프루스트에 관한 디지털인문학적 연구 동향 분석

### Digital humanities Research Trends on Marcel Proust

민진영\*

Jinyoung MIN\*

**요약**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배경에 힘입어 마르셀 프루스트의 탄생 150주년을 맞는 2021년과 서거 100주년을 맞는 2022년에는 프루스트에 대한 다양한 디지털인문학적 연구가 진행되었다. 니콜라 라고노는 문학 웹사이트 '프루스트노믹스'를 운영하여 프루스트와 관련한 온/오프라인의 담론들을 아카이빙하여 분석하고, 『프루스트그래프』를 통해서 프루스트와 관련된 이야기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둘러싼 다양한 자료들을 수치화하여 효과적으로 시각화하였다. 2021년에 프루스트의 삶과 작품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온라인으로 서비스하는 버팔로 프루스트 프로젝트 Buffalo Proust project 2021가 진행되었다. 일리노이 대학의 콜브는 그르노블 대학의 프랑수아즈 트리쉬와 함께 프루스트의 서신을 디지털화하여 온라인으로 서비스하는 작업인 Corr-Proust 사업을 진행하였다. 국내의 프루스트에 대한 디지털인문학적 연구는 부재한 상황이라서 지난 60년간 출판된 학술논문의 어휘를 분석하여 2000년 전후 주제 면이나 양적인 면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음을 어휘빈도와 워드클라우드를 통해 시각화해보았다.

**주요어** : 마르셀 프루스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프루스트 서신 프로젝트, 디지털인문학, 연구동향

**Abstract** Fueled by the digital transformation era, the 150th anniversary of Marcel Proust's birth (2021) and 100th anniversary of his death (2022) witnessed a surge in digital humanities research. This goes beyond supplementing traditional methods; it fosters new approaches like Nicolas Lagonneau's 'Proustonomics' website (archiving online/offline Proust discourse) and 'Proustographe' (quantifying and visualizing data related to Proust). The Buffalo Proust Project (2021) provided online access to materials on his life and works, while the Corr-Proust project digitized his correspondence. While Korea lacks established digital Proust research, recent analysis of academic paper vocabulary (through word frequencies and word clouds) reveals significant thematic and quantitative development around 2000, paving the way for future Korean ventures in this exciting field. Digital humanities research offers the potential to unearth new research topics, enhance efficiency, and promote international collaboration, ultimately leading to a deeper understanding of Proust and groundbreaking advancements in the field.

**Key words** : Marcel Proust, *À La Recherche du temps perdu*, Corr-Proust project, Digital Humanities, Research Trend

#### 1. 서론

마르셀 프루스트 Marcel Proust의 탄생 150주년을 맞는 2021년과 서거 100주년을 맞는 2022년에 프랑스를

비롯하여 국내외에서 프루스트에 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해 왔다. 더군다나 21세기에 들어서서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배경에 힘입어 해외에서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À la recherche du temps perdu*에 대

\*정희원, 전남대학교 불어불문학과 (단독저자)

접수일: 2024년 3월 15일, 수정완료일: 2024년 4월 11일

게재확정일: 2024년 5월 5일

Received: March 15, 2024 / Revised: April 11, 2024

Accepted: May 5, 2024

\*Corresponding Author: sahara@jnu.ac.kr

Dept. of French linguistics and literatur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orea

하여 디지털데이터 분석을 도입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탄생 150주년과 서거 100주년이라는 시기가 2020년에서 2021년까지의 코로나 봉쇄 시기와 맞물린 탓에 프루스트에 대한 비대면 세미나가 왕성하게 진행되기도 하였다. 디지털과 정보화에 접목된 비대면 온택트contact 세미나는 프루스트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가능하게 하였다.

작가 프루스트가 20세기를 풍미했던 정신분석, 페미니즘, 해체주의와 같은 비평 이론에도 영향을 많이 끼쳤다는 것은 서양 문학비평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문학론에 대한 일반 독자들도 부인하지 않는 바이다. 지난 100여 년간 문학 분야에서 프루스트가 얼마나 거론되었는지, 그 영향력의 실체를 밝혀 보는 것이 의미 있는 작업일 것이다. 이런 작업에는 방대한 연구 작업에 대한 디지털데이터 분석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세계적으로 2021년과 2022년에는 PROUST21, Proustonomics, Buffalo Proust project 2021, Corr-Proust와 같은 디지털인문학적 접근이 이뤄졌다. 국내에서도 2021년과 2022년에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 관한 연구 성과가 돋보였다. 민음사에서 13권으로 20여 년 만에 새로운 번역본이 완역되어 출판되었고,[1] 학술논문 17편, 프루스트의 다른 작품들의 번역서 및 연구서가 16권이 출판되었다. 과거 어느 때보다도 활발히 국내의 연구 성과가 돋보이는 분량이라고 단언하지 않을 수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디지털인문학적 방법론을 활용하여 마르셀 프루스트(Marcel Proust)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À la recherche du temps perdu』에 대한 국내외 연구 동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 대한 다양한 디지털데이터 분석 접근법의 국내외 경향을 비교하여 분석하고, 국내 연구에서 프루스트 연구 학술논문이 어떤 경향이 있으며 어떻게 변모해 왔는지를 제시해 보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는 디지털 신기술 전환 시대의 프루스트 문학 연구의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다.

## II. 해외의 디지털 인문학적 접근 동향

### 1. 프랑스의 디지털인문학적 접근 사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 대한 데이터 분석의

최초 시도로는 Étienne Brunet가 1982년에 시도한 어휘 분석을 꼽을 수 있다.[2] 이 논문에서는 전체 7권에서 권별로 시간을 나타내는 다양한 명사, 형용사, 부사들이 어떻게 자주 등장하는지를 수치와 그래프로 시각화했다. 또한 시제를 나타내는 조동사 être와 avoir의 다양한 변화형들이 권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시각화하고, 그에 따른 각종의 과거-현재-미래의 표현을 수치화해 주었다. 이 분석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가 과거라는 시간에 대한 접근이 얼마나 다양하고 집중되어 있는지 수치를 통해 파악하게 해주는데 시사점이 있다.

프랑스국립도서관BnF에는 프루스트의 친필 기록에 대한 수집과 디지털화가 이루어져 있다. 1922년 프루스트가 사망하자 그의 모든 글은 남동생 로베르 프루스트Robert Proust가 맡게 되었고, 로베르 프루스트의 딸인 수지 망트Suzy Mante가 이 자필 기록을 보관하다가 1962년 프랑스국립도서관에 모두 기증하였다. 프랑스국립도서관에서는 프루스트 기증 도서(Le fonds Proust)는 프루스트의 거의 모든 친필본을 보관하고 있고, 그에 대한 디지털화를 일부 진행하여 도서관 사이트를 통해 일부를 공개하고 있다.[3]

2013년에는 프루스트의 초고에 대한 TEI(Texte Encoding Initiative) 방식의 디지털화를 시도하였다. 이 작업은 프루스트가 원고를 자필로 쓰고 수정하면서 이뤄진 작업들을 파악하게 해 준다. 이 작업을 통해 초벌과 초벌에 대한 수정작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이해하게 된다. 수정이 여러 차례 이뤄지면서 초고가 변화되는 과정을 주석과 함께 소개되어 있다. 이 디지털화 작업은 프루스트가 행했던 여러 침삭들의 층층을 파악할 수 있게 해 준다.[4]

니콜라 라고노Nicolas Ragonneau는 2019년 5월부터 문학 웹사이트 '프루스트노믹스'를 운영하고 있다. (<https://proustonomics.com/>) 이 사이트를 통해 프루스트에 대한 과거와 현재의 다양한 담론들을 한데 모아 소개하고 있다. 그는 2021년 9월에 『프루스트그래프, 인포그래프로 본 프루스트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Le Proustographe: Proust et À la recherche du temps perdu en infographie』를 출간했으며, 같은 해 장-이브 타디에Jean-Yves Tadié의 서문을 곁들여 『프루스트노믹스, 프루스트 사후 100년 Proustonomics, cent ans avec Marcel Proust』을 출

간하였다.

『프루스트그래프』는 프루스트와 관련된 이야기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둘러싼 다양한 자료들을 수치화하여 효과적으로 시각화한 책이다. 한눈에 프루스트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파악하게 해주어서 이 장편소설을 읽어나가고 이해하는데 지름길을 제공한다.[5] 이 책에서 소개한 바에 의하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가장 짧은 문장은 한 단어로 이루어져 있고 가장 긴 문장은 931단어로 되어 있으며, 소설 전체는 1,700,000여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많이 쓰이는 명사와 형용사를 순서대로 열거하고 있으며, 동사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시제로 반과거(28%)-현재(21%)-부정법(21%)-과거분사(4%)-현재분사(4%)-단순과거(4%)-조건법(3%)-미래 시제(1%)의 순서로 나열되어 있다. 이 소설이 1인칭의 자전적 소설이자 관찰 자적 시선으로 다양한 풍경과 인물들을 소개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보기와 관련된 어휘들의 빈도수도 나열하였는데, 그 순서와 빈도는 각각 voir(4,306)-oeil(1,194)-regarder(713)-regard(627)-apercevoir(603)-vue(437)-image(337)-revoir(277)-photographier(142)-yeux(114)-point de vue(103)-percevoir(74)-observer(46)-aveugle(41)-observation(33)으로 추출되었다. 이런 구체적인 수치로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독자들은 정복하기 쉽지 않은 이 장편소설을 비교적 쉽게 읽게 된다.

『프루스트노믹스』는 프루스트와 관련한 온/오프라인의 담론들을 분석하고, 프루스트노믹스 사이트를 통해 오고 간 다양한 담론들을 소개한다. 100여년간 프루스트와 그의 글들이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 회자되어 왔는지를 밝히고 있고, 프루스트와 관련한 강연과 세미나가 이뤄지고 있는지 소개했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주고 있다. 온라인사이트를 운영하여 세계 어느 곳에서 프루스트와 관련된 이슈가 생기는지 소개했던 자료들의 축적이 돋보인다. 프루스트노믹스 사이트는 2024년 현재에도 계속 운영중이며, 프루스트 관련 자료가 계속해서 집적되고 있다.[6]

2021년에는 그르노블 대학 교수인 프랑수아즈 르리쉬Françoise Leriche가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와의 협업을 통해 프루스트의 서신을 디지털화하여 온라인으로 서비스하는 작업인 <프루스트 서신 프로젝트 Corr-Proust project>사업에 착수했다. 르리쉬 교수에

따르면 “프루스트의 서신은 문학계에서 잘 알려져 있지만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널리 사용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대중의 관심은 존재합니다. 이전에 공개되지 않았든 공개되지 않았든 원본 문서가 (재)발견될 때마다 미디어 이벤트가 됩니다.”라고 인터뷰하였다.[7] 프루스트의 서신은 2년여의 일리노이 대학과의 협업 끝에 디지털화에 성공하였고, 현재 원본과 디지털 활자본으로 동시에 참조가 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으며, 더 나아가 말뭉치 서비스를 통해 의미연결망을 파악할 수 있는 단계에까지 어느 정도 완성되었다.(<https://corr-proust.org/>)[8]

종합해 보자면, 프랑스에서 프루스트에 대한 데이터 분석은 프루스트의 자필 원고 혹은 출판본, 즉 프루스트가 쓴 글 자체에 대한 데이터 분석에 집중되어 있다. 프루스트에 대한 메타담론에 관한 연구는 그의 사후 100년 가까이 이르러 온라인상에서 조금씩 생겨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2. 프랑스 이외의 해외 디지털인문학적 접근 사례

프랑스 이외의 해외에서도 프루스트에 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뤄져왔다. 프랑스어권 국가나 프랑스어권이 아니더라도 영미문학계에서 프루스트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 왔는데, 그 이유는 다수의 평론가들이 프루스트를 프란츠 카프카Franz Kafka나 제임스 조이스James Joyce와 같은 20세기의 대문호에 비견할 만큼 높이 평가했기 때문일 것이다. 디지털 인문학이 앞서 있던 미국에서 프루스트 연구자들은 텍스트 데이터 분석에 의한 프루스트 연구에 앞장섰는데, 2010년대에 들어 더욱 활발해졌다.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 대한 연구는 계속 이뤄져 왔고, 따라서 디지털인문학이 태동하던 시절부터 프루스트에 대한 디지털 인문학적 접근 역시 같이 이루어졌다.

제프리 드루인Jeffrey Drouin은 교회를 중심으로 기억, 시간, 예술이라는 키워드들이 다양한 어휘연결망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ORA(Organisation Risk Analyse)라는 연상 네트워크 도구를 이용하여 시각화하였다.[9] 이를 통해 2014년에 기억, 시간, 예술을 이어주는 연상 관계의 끝에 교회가 큰 중심점 역할을 한다는 결론을 도출해 낸다. 마르탱빌 종탑에 대한 화자의 기억과 시간에 대한 단상을 보더라도, 뱅퇴이유 소악절을 통해 예술로의 소명으로 귀결되는 화자의 명상을 보더라도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주제는 교회, 종탑, 신앙과 같은 종교적 어휘들이 연관되어 있음을 도출해냈다. 어휘연결망 분석 결과를 볼 때, 화자의 예술에 대한 소명이 교회가 중심 모티브로 모아진다는 것을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전체 7권을 통해 보여준다. 이 내용은 2014년 11월 17일 일리노이 대학 강연 Digital Methods for Literary Criticism: Proust, Illustration, and the Archive에서 처음 발표되면서 주목받게 되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교회 모티브의 핵심적 역할을 살펴보기 위해서 드루인은 ORA프로그램을 작품 전체에 적용하여 네트워킹의 모습을 시각화해 보았다. 토픽 모델링을 통해 노드와 토큰의 연관관계를 파악하여 네트워킹의 실체가 드러나게 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알아낸 것은 먼저, 과거를 돌이키는 개념으로서의 시간은 여성에 대한 질투와 관련이 있는 반면, 미래지향적인 환상으로서의 시간에 대한 구절은 피렌체의 붉은 돔과 베니스의 프레스코를 상상하는 등 예술과 관련된다는 것이다. 또 한가지 알아낸 것은 기억의 시간적 차원을 제거하여 네트워크 그래프에 표시하면 내러티브의 연대기와 해석적 메타데이터가 한 시점으로 동시에 존재하게 되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교회와 관련된 구절들이 소설의 서사에 늘 함께 존재한다는 것이다. 교회가 작품의 중심에 있다는 연결의미망 분석이 도출되는 것이 의아한 것은 아니다. 프루스트는 교회église, 성당cathédrale, 종탑clocher와 같은 어휘에 상당히 매료되어 있었다. 한때 프루스트는 소설의 제목을 <성당 La Cathédrale>이라고 지을까 고민하기도 했다고도 한다. 그의 거대한 장편소설이 완성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워했던 상황을 유럽의 많은 성당이 미완성으로 남기도 했던 역사로 인식하기 때문이다.[10]

버팔로 대학교University Buffalo에서는 2021년에 프루스트의 삶과 작품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온라인으로 서비스하는 버팔로 프루스트 프로젝트Buffalo Proust project 2021를 진행하였다. UB 연구 가이드UB Research Guide를 만들어 (홈페이지: <https://research.lib.buffalo.edu/proust/home>) 2024년 현재 제2판까지 서비스하며 수시로 자료가 업데이트되고 있다. 전담 사서가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메인 페이지에서 프루스트의 삶, 작품, 서신 및 역사적 맥락에 대한 인쇄물 및 온라인의 확실하고 권위 있는

자료에 대한 링크를 제공하고 있다. 프루스트의 소설에 언급된 미술과 음악에 대한 시청각 자료 및 추가 디지털 리소스에 대한 링크도 제공하고 있다. 이 가이드는 아마추어든 학자든, 초보자부터 프루스트 전문 연구가까지 모든 수준의 모든 독자를 위해 프루스트 걸작의 풍부함을 열어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 프랑스의 자료들을 참고할 수 없는 비프랑스어권 접속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일리노이 대학에서도 프루스트에 관한 디지털 자료 섹션을 별도로 마련하여 Proust Library Guide(<https://guides.library.illinois.edu/c.php?g=1041961&p=7558529>) 라는 이름으로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는 영어 및 프랑스어로 된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와 프루스트가 쓴 그 외의 글, 프루스트가 살던 시대의 사회 및 문화 현상들에 관한 다양한 링크가 제공되어 있다. 특히 전문 연구자를 위해 프루스트 전문가인 필립 콜브Philip Kolb교수가 모은 자필원고와 서신들에 대한 디지털 자료들을 한데 모아 The Kolb-Proust Archive 라는 섹션으로 만들어 소개하고 있다. 특히 프루스트의 서신은 'Corr-Proust project 2020'라는 이름으로 디지털 아카이빙 되었다.[11] 콜브 교수는 50여 년 동안 프루스트 서신을 연구하여 프루스트가 날짜를 적지 않아 정확한 일자를 표기하지 못했던 서신에 날짜를 찾아 주석으로 표기하는 편집본을 제작하여 서비스하였다.

필립 콜브가 프루스트에 대한 연구자료 중에 프루스트의 서신은 디지털화와 웹서비스를 위해 크게 기여했다. 콜브가 정리한 프루스트의 서신 자료를 프랑스의 그르노블-알프스 대학교의 연구자들과 협업하여 프랑스에서 소장하고 있는 프루스트 서신과 함께 시디털화하는 거대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이 프랑스-미국 협업 작업은 'Proust21' 이라고 명명하여 프루스트가 주고받은 약 6,000통의 편지를 디지털 형태로 출판하고 온라인에 공개할 포부를 가지고 현재 진행중이다. 프랑스에서는 『마르셀 프루스트 서신Correspondance de Marcel Proust』이라는 제목으로 플롱Plon출판사에서 약 5,300통의 편지를 21권으로 구성하여 1970년에 첫 판본을, 1993년에 두 번째 판본을 출판하였었다. 콜브교수는 이 저서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서신들을 모으고 프루스트의 서신들에 주석을 달면서 서신 자료들을 건설히 아카이브 하였고, 이 연



년대	학술논문편수
1960~1969	1
1970~1979	5
1980~1989	11
1990~1999	30
2000~2009	53
2010~2019	103
2020~2023	34
계	237

표 1. 1960년~2023년 프루스트 관련 국내 학술논문 편수  
Table 1. The number of academic articles on Proust in Korea 1960~2023

<표1>을 보면 2000년을 전후로 학술논문 편수의 변화가 크다. 2000년 이후 학술논문의 편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2000년까지의 연구논문은 47편이지만, 2000년에서 2010년까지 단 10년 만에 53편이 저술되었다. 2000년을 기점으로 프루스트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 대한 연구가 매우 활발해지고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000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로 분리하여 학술논문의 텍스트마이닝을 실행해 본다면 연구의 변화 양상을 발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2000년 이전의 학술논문과 2000년 이후의 학술논문들을 분리하여 텍스트마이닝을 실행하였다. 텍스트마이닝은 텍스트 톰(TEXTOM) 도구를 활용하였는데, 그 이유는 학술연구논문의 디지털데이터를 한글뿐만 아니라 영어와 프랑스어까지 정보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아래는 각각 2000년 이전과 이후의 어휘를 내림차순으로 100개 어휘를 정리하였다. 여기에 추출된 어휘들은 명사, 동사, 형용사 위주로 나타냈으며, 문법적 성격을 드러내는 조동사나 조사는 제외하여 학술논문들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표2>와 <표3>은 어휘빈도수와 어휘를 나열한 것이다.

48;프루스트 38;시간 19;등장인물 18;삶 14;마르셀 13;러스킨 12;세상 12;잃어버린시간을찾아서 11;알베르틴 11;텍스트 10;예술 10;장소 9;목소리 9;베니스 9;스완 8;고유한 8;대상 8;소설 8;소통 7;언어 6;독자 6;번역 6;언어학 6;연구 6;오데트 6;작품 6;책 6;형태 5;개별적인 5;개성 5;대화 5;문학 5;사람 5;상징 5;인성 5;읽기 5;자아 5;작가 5;구성 5;화자 4;가치 4;다음에 4;대상의 4;독자 4;드레스 4;마침내 4;말 4;매력 4;방 4;번역 4;연구 4;예술 4;위치 4;이야기 4;인물 4;질베르트 4;첫번째 4;할머니
--

3;느끼다 3;기호 3;사교 3;스타일 3;통사 3;시도 3;감각 3;과정 3;나 3;다양한 3;대중 3;도착하다 3;독자들 3;모양 3;밤 3;비교 3;비평 3;새로운 3;샤르댕 3;설명 3;소설가 3;수 3;수단 3;수많은 3;시계 3;아미앵 3;삶 3;연구의 3;인식 3;인용 3;작가 3;저자 3;정의하여 3;종 3;줄거리 3;참석하다 3;비의지적 3;콩브레 3;탄생 3;특징 3;행동 3;형태소 3;환영
표 2. 2000년 이전 국내 학술논문에 대한 어휘분포(내림차순) Table 2. Word Frequency of academic articles before 2000

153;프루스트 67;들뢰즈 67;영화 65;소설 64;시간 63;기억 55;잃어버린시간을찾아서 46;작가 45;작품 42;시간 40;마르셀 38;연구 35;작가 32;논문 31;벤야민 29;화자 28;소설 27;과정 26;다양한 26;진정한 24;개념 24;과거 24;기호 22;과거 22;세계 21;문학 21;삶 20;문학 19;삶 17;글쓰기 17;문학 17;사랑 17;역할 17;화자 16;글쓰기 16;벤야민 16;주인공 16;죽음 16;철학 15;20세기 15;알베르틴 15;역사적 15;후기 14;독특한 14;배움 14;작품 14;주인공 13;관점 13;글쓰기 13;문학적 13;예술 13;인간 12;광기 12;구조 12;연구 12;이론 12;자기 11;기호 11;미학적 11;배움 11;본질 11;사유 11;예술 11;이미지 11;작품 11;전쟁 10;과거 10;모더니즘 10;이론 10;인간 10;작업 10;텍스트 10;특성 10;프랑스 10;하이데거 9;감각적 9;관계 9;되찾은 9;마네 9;마르셀 9;사회적 9;심리적 9;예술적 9;이미 9;자아 9;자유 9;재현 9;존재 9;주인공 9;스완 9;현재 8;간헐 8;글쓰기 8;글 8;독자 8;베르그손 8;사진 8;음악 8;의식 8;자본주의 8;자아 8;작가 8;차이 8;효과 7;가능성 7;공간 7;관점 7;기호들 7;되기 7;마담 7;비자발적 7;사랑 7;시적 7;영원 7;은유 7;이론 7;이야기 7;전쟁 7;정체성
표 3. 2000년~2023년 국내 학술논문에 대한 어휘분포(내림차순) Table 3. Word Frequency of academic articles 2000-2023

<표2>와 <표3>을 기반으로 워드클라우드를 만들어 보았다. 학술논문에서 ‘프루스트’라는 어휘가 가장 많이 등장하였는데, 워드클라우드를 만들 때는 그 외 어휘들이 시각적으로 잘 드러날 수 있게 하려고 ‘프루스트’는 제거하였다. 작품명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띄어 쓰지 않고 진행함으로써 분리되지 않은 표현 ‘잃어버린 시간을찾아서’로 추려낼 수 있었고 이는 워드클라우드에도 잘 반영되었다.



그림 2. 2000년 이전 학술논문의 어휘 워드클라우드  
 Figure 2. Wordcloud of academic articles before 2000



그림 3. 2000년 이후 국내 학술논문에 대한 어휘 워드클라우드  
 Figure 3. Wordcloud of academic articles after 2000

어휘표 <표2>와 <표3>와 워드클라우드 <그림2>와 <그림3>을 통해 2000년 이전과 이후에는 논문 편수에서의 차이 뿐만 아니라 내용적 측면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000년 이전에는 ‘시간’, ‘등장인물’, ‘스완’, ‘예술’, ‘알베르틴’, ‘장소’, ‘베니스’ 등의 어휘들이 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2000년 이전 학술논문에서는 작품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분석을 통해 시간과 기억과 관련하여 인물, 장소, 그리고 사건에 관해

관심을 가졌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반면 2000년 이후에는 인물, 사건, 장소 이외에도 ‘들뢰즈’, ‘영화’, ‘벤야민’, ‘광기’, ‘하이데거’ 등의 어휘들도 상당히 비중 있게 등장하였다. 이것은 작품 분석을 넘어서서 프루스트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가 철학과 영화와 같은 다른 장르와 어떻게 영향 관계에 있는지를 살피는 확장된 연구가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IV. 결 론

이상으로 프루스트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 대한 디지털인문학적 연구분석의 현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다. 디지털인문학은 21세기 인문학에서 크게 두드러지고 있지만, 국내의 디지털인문학은 그 개념적 인식 수준에만 머물러 있고 응용 및 활용 부분에서는 미약하다.[12][13] 최근에 몇몇 기초적인 디지털 분석 소프트웨어로 한국의 고전문학을 분석하는데, 몇몇 연구자가 뛰어들고 있지만, 단순히 작품 속 데이터만을 분석하고 있을 뿐 최근의 연구 경향을 반영한 빅데이터 분석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14]

이를 극복해 보고자 본 연구에서는 해외에서 프루스트와 관련한 디지털인문학적 분석이 어느 위치에 처해 있는지 프랑스와 미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국내의 프루스트 연구가 어떠한 변화를 이루어왔는지 데이터마이닝을 통해 살펴보았다. 프랑스가 프루스트가 쓴 초고의 디지털라이징에 힘써왔으며, 프루스트 탄생 150주년과 서거 100주년에 맞춰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를 제시하고 각종 온라인 담론들을 이끌어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미국의 디지털인문학적 높은 관심에 기인하여 프루스트 서신의 디지털라이징과 서신의 웹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에서는 지난 60여 년간 237편의 학술논문이 출판되었는데, 이 학술논문은 2000년을 기점으로 하여 체계적인 면에서나 양적인 면에서 많은 변화를 겪었음을 알 수 있었다. 프루스트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 대한 국내 연구에는 연구서와 번역서 등이 있는데, 이에 대한 디지털인문학적 연구에는 미치지 못했으므로 향후 진행해 보아야 할 것이다.

## References

- [1] Proust, Marcel, *À la recherche du temps perdu*, édition publiée sous la direction de Jean-Yves Tadié, 4 tomes, Paris, Gallimard, 1987-1989.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김희영 옮김, 전13권, 민음사, 2012-2023
- [2] Brunet, Étienne, « Le temps chez Proust. Analyse quantitative », *Marche Romane*, 1982, pp.39-56.
- [3] **Le fonds Proust à la BnF**  
<https://gallica.bnf.fr/conseils/content/marcel-proust>
- [4] Julie André et Elena Pierazzo, « Le codage en TEI des brouillons de Proust : vers l'édition numérique », *Genesis* [En ligne], 36 | 2013, mis en ligne le 09 juillet 2015, consulté le 26 février 2024. URL : <http://journals.openedition.org/genesis/1159> ; DOI : <https://doi.org/10.4000/genesis.1159>
- [5] Ragonneau, Nicolas, *Le Proustographe: Proust et À la recherche du temps perdu en infographie*, Denoël, 2021
- [6] Ragonneau, Nicolas, *Proustonomics - Cent ans avec Marcel Proust*, Le Temps qu'il fait, 2021
- [7] “La correspondance de Marcel Proust bientôt numérisée.” <https://newsroom.univ-grenoble-alpes.fr/culture/la-correspondance-de-marcel-proust-bientot-numerisee-271013.kjsp?RH=UAACTUS> 2017.10.27.
- [8] Idiebold (2022, 19 mai). “Recherches complexes et fouille textuelle dans l'édition numérique de la correspondance de Proust. *Les carnets de la Fondation des Treilles*. Consulté le 8 mars 2024, à l'adresse <https://doi.org/10.58079/qv6f>
- [9] Drouin, Jeffrey, “Iconoclastic Textuality: The Ecclesiastical Proust Archive, *Textual Cultures*, Vol.9, No.1, Indiana University Press: 2014, pp. 22-39 URL: <https://www.jstor.org/stable/10.2307/26500710>
- [10] Tadié, Jean-Yves, *Marcel Proust : la cathédrale du temps*, 2017, Gallimard
- [11] Jodi Heckel, “Illinois, French partners digitizing Proust's letters”, <https://slcl.illinois.edu/news/2018-12-12t170749/illinois-french-partners-digitizing-prousts-letters>
- [12] IRyu, Intae (2023). “An Essay on the Possibilities of Digital Sino-Korean Literature”, *East Asian Journal of Sinology*,(17), 9-42, DOI : 10.31666/jspklls.2023.3.17.9
- [13] Jinyoung Min, “A case study of Digital humanities lecture on Marcel Proust's À La Recherche du temps perdu”, *The journal of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9No.4, 269p ~ 275p
- [14] Younggyu Lee, Jong-gab Choi, “Research Trends in James Joyce's Texts from 2003 to 2022: A Keyword Analysis of Published Articles”, *James Joyce Journal*, Jun 30, 2023 29(1):15 DOI 10.46258/jjj.2023.29-1.15

※ 이 논문은 전남대학교 학술연구비(과제번호: 2023-1148-01)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